

‘승가(sangha)’라는 말은 원래 ‘화합중(和合衆)’이란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교단이 유지될 수 있는 첫째 조건으로 제자들의 화합을 항상 역설하시며 “화합중을 파괴하는 사람은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를 받은 것이 되고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를 받은 것이 된다”고 경고하셨다. 조계종에 다시 분규가 재연돼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유가 어쨌든 스님들의 싸움은 불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듯 절망감까지 준다.

세상의 다툼을 잘 교화시켜 구제해야 할 스님들이 도리어 싸움과 파괴에 앞장서다니 될 말인가. 이를 경계하는 부처님 말씀을 경전에서 찾아본다.

〈편집자 주〉



다툼

■늘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교단의 분쟁을 화합시키면 반드시 해탈문을 여는 것이 되리라. 〈보요경〉

■비구들이여, 그 무리중의 한 비구는 조종하고 투쟁하고 쟁론하여 서로 구경(口競)으로 쟁론해서 산다. 비구들이여, 이를 불화합중(不和合衆)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정당한 비구는 화합하고 화합하며 쟁론하지 않고 쟁과 물처럼 잘 섞인다. 서로 친애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면 이를 화합중(和合衆)이라 살하느니라.

〈중지부경전〉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구사라왕산에 계시 때였다 그때 코살라국에 있었던 비구들은 자주 서로 싸우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서로 싸우지 마라. 만일 말로 싸우고 그름을 가리려 한다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날이 없으리라. 오직 참는 것만이 진실로 말싸움을 끝낼 수 있나니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존귀하다 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향해 성내고 불평한 말을 퍼붓는 것, 성인의 말씀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 이니라.

■부처님께서 발지국의 사마촌에 계시 때 어느 날 아라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분한 마음을 일으키면 원한을 맺는다. 아라야, 사람이 분한 마음을 일으켜 원한을 맺으면 그는 스승을 공격하지 않고 법을 보지 못하며 계를 지키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은 대중 가운데서 자기 주장만

“분쟁 화합시키면 해탈문 여는것”

을 고집하여 싸움을 일으킨다. 그러한 싸움은 대중에게 이익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한 일은 도리가 아니요, 이익되는 일도 아니며, 즐거운 일도 아니다. 그러한 싸움은 결국 천상과 인간에 지극히 심한 고통과 재앙을 일으키느니라.” 〈중일아함경〉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내는 사람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남들이 모두 약행한다고 가담하지 마라. 강한 자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고, 자기와 같은 사람앞에서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앞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잡보장경〉

■욕과 비방을 늘어놓고서 우둔한 자는 이것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승리는 이를 참고 옮겨 받는 이의 것이다.

〈상용부경전〉

■이거면 원망을 낳고 지면 스스로 열등감에 빠진다. 승부를 다투려는 마음만 버린다면 다툼이 업어져서 편안해질 것이다. 〈법구경〉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였다. 그 무렵 마하카타야나는 바라나 마을의 한 숲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대기에 물통을 달고 다니는 바라문이 찾아와 물었다. “세상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왕이 싸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바라문과 바라문도 다투는대. 재산이 많은 장자거사들도 싸웁니다. 이들은

무슨 까닭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왕과 왕이 싸우고 장자거사와 장자거사가 싸우는 것은 탐욕에 매이고 집착하기 때문이지요.” “세상에는 집을 나온 수행자도 있고 신을 섬기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싸웁니까? 종교인들이 싸우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행자와 수행자들이 싸우는 것은 자기 생각(見解)에 매이고 집착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탐욕이나 견욕에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는 길은 없습니까?” “우리의 스승인 여래,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여장부, 천인사, 불배존께서는 탐욕과 견욕의 매에서 벗어나 분이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신 분이요.” 마하카타야나의 설명을 들은 바라문은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다. 기원정사에 계시냐고 하자 그는 그쪽을 향해 예배하고 돌아갔다.

〈잡아함경〉

열린마당

범불교연대회의 토론회 ‘현 조계종상황 진단’

사법부의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판결은 급기야 현 총무원장과 정화개혁회의측의 무력충돌로 이어졌다. 판결 이후 불교계는 종단 내부문제가 사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주체성 상실의 현상속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실천승가회, 선우도량, 새불교운동전국승가

회, 재가연대 등 교계 40여 운동단체 및 신행단체의 연합체인 범불교연대회의는 8일 조계종 포교원 2층 강의실에서 현 종단상황에 대한 불교계 제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승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전재성교수(한국불교대)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와 ‘불교자주성 상실의 위기와 불교자주화 수호’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 토론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사법부 판결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부대중 합의하에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음은 발제문 요지다. 〈편집자 주〉

“당시 긴박한 상황 배제한 판결”

“세속법 의존했던 관행 반성을”

현승(조계종 중회의원)



이번 판결은 95년 1월과 4월 일부 스님들이 당시 월주 총무원장 선출 무효 확인 소송과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단체는 그 자율성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결의에 따라 그 기구를 개폐하고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규범을 정할 수 있고 이는 스스로의 질서 규범으로써 그 자치에 맡겨지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거각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종단의 법법이 세속의 법정에 의해 유린되고,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종단을 다시금 분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에서 총무원장 선거가 무효라는 근거로 당시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된 136회 임시 총회가 소집 공고를 7일전에 게시하고 불교신문과 청사 게시판에 게시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당시 총무원 청사가 정화개혁회의에 의해 강제 접수되고, 종단 기관인 불교신문이 그들의 손에 장악되어 이와 같은 절차를 구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던 상황을 간과한 채 단순한 법의 논리로 이를 판결한 것으로 종단 내부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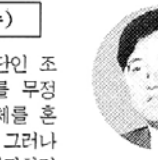
조계종단은 지난 98년 폭력적 청사점거와 종헌 질서 유린행위의 와중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50여일 가까이

전개된 온갖 폭력 행위로 인해 한국불교의 위신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국민들은 불교의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총무원장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일 천주교의 주교경이냐 기록과 KNCC 회장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사태에 또 다른 배경이나 정치적 음모가 도사려 있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이번 판결의 이면에 불순한 의도와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불교도들이 힘을 다해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불교는 또다시 분규의 나락으로 떨어져 종단은 수많은 소송에 휩싸이고, 총무원 청사와 전국의 사찰은 아수라장의 싸움터로 변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번 판결은 2천만 불자에 대한 모독이며 사법부가 앞장서서 한국불교를 분규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법난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화개혁회의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총무원장 선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자신들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착각하고 있다.

전재성(한국불교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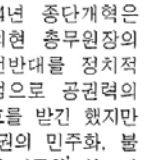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거대 종단인 조계종, 나아가서는 한국불교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으로써 불교계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종단의 분규를 세속적인 법으로 심판하려는 비자주적인 종단관행은 역사적으로 불타의 해명을 잇는데 스스로 자주권을 침해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정죄되어왔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12년 선학원운동에서 용성스님이 총독부에 승려의 대치식육을 금하는 건백서를 올린 것은 불교내부의 문제를 세속적인 권력에 의해 해결하려했던 비자주적인 행동양식을 보여주고 일제는 당연히 탄압에 나섰다. 또 조계종은 1954년부터 70년까지 16년간의 교단정화시대에 막대한 삼보장재를 소모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권력과 아합하고 세속적인 법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해 후유증이 컸다.

그러나 70년대 이후의 승단정화 역시 비구대처 싸움에 버금가는 종경정탈의 폭력적인 역사와 끝없는 소송 그리고 정치적 아합과 계엄군에 의한 10·27법난, 권승들의 종단독식으로 이어져져 왔던 것은 단적으로 승단의 이념적 무정부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이후 94년까지의 승단정화는 말로만 정화개혁이었던 사실상 문중이나 파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종정과 총무원장 그리고 종회의 종경에 대한 갈등의 역사였다.

승가화합의 선거



94년 종단개혁은 서의현 총무원장의 삼선반대를 정치적 쟁점으로 공권력의 보호를 받긴 했지만 ‘종경의 민주화, 불교의 자주화’라는 대중적 명분에 의한 민주적인 개혁이었다. 이러한 개혁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종단내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행정 합리화의 토양을 마련했다. 그러나 개혁종단이 개혁주체세력의 양성과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98년말 소위 정화개혁회의에 의해 폭력적으로 총무원이 점거당하는 사태를 유발했으며, 사태가 진정된지 10개월만에 불교도들을 다시 혼란 속에 빠뜨렸다.

유감스럽게도 종단과 불교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화 이후 반세기가 흘러가도록 사법부와 공권력에 의존해 정통성을 확보해 온 비자주적인 경향이 급기야 사법부의 판결에 의한 종단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시켰다는 사실은 종단 자주성의 위기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종단의 자주화가 위기에 빠진 역사를 반성하고 외부에서 종단을 음해하려는 어떠한 구실도 제공하지 않도록 사부대중이 모두 참여하는 종단의 내부적인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만이 오늘의 개혁종단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단 해 11월 실시 예정이었던 총무원장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스님을 포함해 몇몇 스님의 이름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론된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자연스런 일로 받아들여진다. 총무원장선거와 관련한 조계종 종헌·종법에도 경선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가 마땅한 경쟁의 장일 수는 없다. 분규의 한 당사자인 정화회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2월 대남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

진 폭력사태로 조계종을 바라보는 불자들과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단순히 총무원장을 뽑는 데 그치지 말고 한차원 나아가 승가화합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종헌·종법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고산스님 뜻과는 무관하게 스님주위에서 내심 단일후보 추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고산스님 출마 반대론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재관에 패함으로써

승가화합의 선거

정성운 (취재1부 차장)

승가화합의 선거

승가화합의 선거

성명서

본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조계종단의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 종단을 이끌어가는 승가단체의 하나로써, 일반국민과 불자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서로 화합하고 대자비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에 힘써야 할 이 때에 종단내부의 분열이 심화되어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데에 대하여 불교를 따르는 사부대중 모두가 뜨거운 눈물로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계종단 사태에 대하여 본 새불교승가회는 정부와 언론기관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사태를 단순히 이권을 둘러싼 권력다툼으로만 보도하고 있는 점과, 지난 12일 조계사에서 진행된 ‘범불교대(사부대중) 집대회’가 불교자주화와 사부대중 화합종단 실현을 염원하며 전국 일반국민에게 달하는 불자들이 참가한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화개혁회의와 현 총무원간의 무력충돌만을 집요하게 확대하여 보도한 점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점이다. 게다가 일부 방송사가 작년사태에 있었던 폭력장면을 다시 편집하여 이번사태에 자료화면으로 보도하는 행위는 언론기관이 불교의 불화합을 격정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집 불구경’을 즐기거나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정부와 언론기관이 진정으로 조계종단의 사태를 격정하고 조속한 해결과 화합을 바란다면, 지금과 같은 양측의 충돌장면만을 집중보도할 것이 아니라, 양편의 이유있는 항변과 내부적으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 그리고 불교를 격정하는 일반 불자들의 목소리들을 좀더 귀 기울여주면 한다.

최근 조계종단은 특히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한층 관심이 높아진 환경문제를 주목하고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 보존, 그리고 정신문화유산에 심도있는 연구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로 인하여 불교가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회정화사업은 축소보도되고 ‘폭력승만이 난무하는 조계종’으로 비춰지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다.

그러한 언론의 이와같은 불미스런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분명 조계종단의 일부승려임에는 틀림없으나, 불교 내부적 혼돈을 부추기고 조장하여 대덕고승들의 숭고한 행적을 흐리게하고, 정법을 수호하고 수행과 대중포교에 치념이 없는 대다수 스님과 건전한 불교세력의 존엄이 저명적인 손상을 입히려는 불교음해세력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에 본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조계종단 사부대중의 조속한 화합을 염원하고, 이번 사태를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언론기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족종교로서 뿌리깊게 자리한 한국불교의 위상을 뒤흔드는 일부 불순한 무리를 우리 사부대중이 힘을 합쳐 불교중흥과 사회화합을 위하여 물아일체를 결의하는 바이다.

- 우리의 주장**
1. 현 조계종단의 사태를 여법하게 수습하여 종단의 화합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1. 불교의 참모습보다 불미스런 장면만을 확대하여 보도하는 언론기관의 편파보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민족종교로서 깊게 자리한 불교의 위상을 뒤흔들고자하는 일부 불교음해세력은 우리 이천만 불자가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불교의 분열을 꾀하여 사회의 혼란과 불화합을 조장하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철회하라.
 1. 불도를 따르는 우리 사부대중은 당연한 대사회적 대인륜적 역할과 책임을 각성하고 회합할 수 있도록 정진 화합하자.
-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때에는 2천만 불자의 연대서명운동을 통하여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 불기 2543년 10월 14일
-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회원일동 합장**

불교복지보건대학 강좌안내

불교의식(염불) 강좌

복지염불회 제2기 교육생 모집

■강의내용 : 기초의식, 정염염불
 ■대 상 : 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배우실 분
 ■교육과정 : 기초, 중급과정(숙성반)
 ■개 강 일 : 1999년 10월 27일(수요일)
 ■강의기간 : 1999년 10월 27일~2000년 2월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7:00~9:00

생활참신특강 전 서울대 박희선 공학박사

파괴적방법으로 온몸으로 기가 넘치고 알파 괴파속에 예지가 빛난다.

80세고령(30년 이상 참선수행) 그리고 결코 지치지 않는 사람! 생활참신을 통해 지금도 30대 못지않은 건강과재력, 정신력을 과시하는 박희선박사! 그 비법을 직접 전수한다.

■ 일 시 : 1999년 11월 11일(목요일) 2회 실시
 오후반: 1:00 ~ 5:00 저녁반: 6:00 ~ 10:00
 ■ 참가비: 5만원(단, 회원은 4만원)
 ※ 선착순마감합니다. ※

한국최고의 참구사 **김남수 원장 침과 뜬 강좌**

「뜸사랑」 동문회 주최

「침과 뜬으로 승부한다」의 저자 김남수 원장은...

침과 뜬에는 중국과 일본의 명의로들도 선생님께서 모시고 있고, 복지보건 봉사활동 및 무의탁 노인들에게 참인술을 베푸시는 명인이십니다.

불교복지보건대학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1동 847-18 (건축사협회 빌딩 6층)
 ■문의전화 : 051)647-6556